

# 코스콤, 성장유망 핀테크 기업에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제공

## »»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 금융위, 국내 핀테크 육성 사업 일환
- 중소 핀테크 기업 60개사에 금융 클라우드 이용 지원
- 금융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구축에서 보안까지 통합 제공

코스콤(사장 홍우선)이 국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클라우드 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핀테크 서비스 환경 조성 및 디지털 금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스콤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가 주관하고 코스콤이 운영 중인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핀테크 기업 60개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오픈 외에 ▲마이데이터 사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오픈뱅킹 등 라이선스 인허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금융 클라우드로 구축하는데 따른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아 왔다.

코스콤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및 안정성을 갖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CSP 3사(네이버클라우드, NHN, KT)와 협업하여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에서부터 아키텍처 설계 구축·운영 및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을 제공 중이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선호하는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맞게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구성된 시스템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최근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가동을 마친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며 “향후 서비스 확장을 위해 스케일업(Scale-up) 등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허가를 준비 중인 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급 망 구성과 중요·비중요 데이터 분리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100% 만족하는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월하게 서비스 개발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김성환 본부장은 “성장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서비스 환경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해결한 한국형 금융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용 및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